

# 해남군,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경제 활력 기대

기존 50만원서 80만원 한도 상향 카드·QR상품권 결제액 5% 혜택 관내 3980개소 상품권 가맹점 운영 "소비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해남군이 연말연시 쏠쏠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남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를 80만원까지 확대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12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 7% 할인판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지류와 카드를 합쳐 최대 8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일로 종료되었던 해남사랑 카드·QR상품권 결제액의 5%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도 재개한다.

7일 이후 카드·QR상품권 결제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책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며 18일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즉시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맑은 군민들이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지역내 소비를 통해 연말연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올

해도 현재까지 1126억 원을 발행, 1033억원이 판매되며 지역경제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내 3980개소가 가맹점으로 가입해 있으며 구매 가능한 19세 이상 해남군민 10명중 7명이 구입·사용할 정도로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참전·보훈 명예수당 5만원 인상 순천시, 2025년 1월부터

순천시는 2025년 1월부터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월 1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예수당지급대상자는 총 1650명으로 순천시는 이를 위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2025년 순천시 보훈 예산은 총 53억원이다.

이번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은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시민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지비로 사용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수익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보훈 대상자분들께 작게나마 더 큰 예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대응 나선다 고흥군, 11개 공동방제단 활용

고흥군은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흥군은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주기적으로 철새도래지 현장을 방문해 철새 유입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비롯해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전용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사육 제한에 들어가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11개의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에는 동강 지역의 오리 밀집 농가(4호)에 대해서 추가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 중 산란계 농장의 발생률이 전년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흥군은 군 내 산란계 농가에 대해 집중예찰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 '전실 방역 점검표'를 배포해, 농장 종사자가 매일 방역 수칙을 자가 점검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및 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방역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일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담양군이 지난 18일 글로벌문화관 문을 열었다.

담양군 제공

## 담양군, 글로벌문화관 문 열어

생활인구 확대 이바지

담양군은 지난 18일 다문화 교육 및 체험 공간인 담양글로벌문화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담양글로벌문화관(구 담빛담루)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군민, 관광객들이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악기, 놀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1층 다문화체험교실은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공간이다. 관내 및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과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2층 의상체험관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일본 5개국의 다양한 의상과 소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2시간 동안 대여 가능하다. 대여한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담양의 여러 관광 명소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3층 옥상쉼터는 교류·소통 공간으로

무인카페 운영, 소규모 공연 등 야외공연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하루 3회 단체예약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선전화(070-8632-0288)로 예약 가능하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글로벌문화관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다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담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의 하나로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함평군, 겨울철 농업 재해 예방 사전 관리 당부

보강 지주 설치 등

함평군이 최근 경기, 추남지역 습설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남부지역에도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시설은 사전 점검과 보강 지주를 설치하고, 과수원에서는 방풍망을 설치해 나무 아래쪽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짚, 보온재로 피복한다.

폭설로 비닐만 파손된 경우 서둘러 비

닐을 씌우고, 지붕이 주저앉은 경우 기둥을 추가로 세워 빠른 복구를 실시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겨울철 시설 재배는 소형터널을 2중 또는 3중으로 만들거나 다겹보온커튼으로 보온율을 높이고 광 투과율과 보온성이 우수한 피복 필름을 사용하고, 배기 및 유동팬을 가동하여 공기 순환과 환기를 한다.

저온·저일조 시에는 난방기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온실 내 상대습도를 70% 이하로 낮추어 결로를 줄이고 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원예작물은 자연 광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겨울철에는 광이 부족한 시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시설 내 투광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 투광량을 늘리기 위해서 외부 피복재를 청소하고, 온실 내부에 햇빛반사 필름이나 고압나트륨등(HPS),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인공광원을 설치하면 부족한 광량을 보충할 수 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온·저일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LED 보광등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성인문해교육 강사 모집 화순군, 디지털 역량 강화

화순군은 19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기초학습 향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 수학, 영어 등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디지털 교육을 병행해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문해교육사 또는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초등 문해교원 과정 이수자, 국어 국문학과 졸업자 또는 국어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확대해 농사일로 바빴던 어르신들이 한가로운 농한기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습 공백을 줄이고 학습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061-379-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인구청년정책과장은 "문해교육은 단순한 학습의 의미를 넘어 어르신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창구이다"며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할 뜻깊은 여정에 많은 교사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